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지난 2010년 11월 27일 명지대학교 방목종합학술관에서 2010년 제27회 기독교학문학회가 있었습니다. 본 원고는 이번 학회의 주제발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학회 발표 논문의 원문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사회발전이라는 개념은 가치 함축적인 개념으로 근대화 과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양식으로 전개되는 사회구조의 변동을 말한다. 본 소고의 관심은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발전 전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을 분석하여 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교회공헌은 사회발전의 핵심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역사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분석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소고는 한국사회의 사회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후에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토대가 되는 신학적 기초와 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참여 태도와 자세를 확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속화되는 지구화 시대를 맞이한 21세기 한국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과제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사회발전 지표와 기독교의 역할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관계는 정치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정치적 상황은 곧바로 기독교의 대정치적 역할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사회발전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지표는 '정치적 민주화'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각각 김영삼, 김 대중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에 따라 기독교의 정치적 투쟁의 의미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성장에만 집착하여 사회참여를 기피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별로 공헌을 하지 못했던 보수적인 주류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생



겨나면서 교회 안에는 새로운 갱신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갱신의 기류는 이른바 사회통합적인 기능과 사제적인 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왔던 보수적 기독교회에 속한 이들도 90년대 이후로는 이른바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사실 진정한 '정치적 민주화'는 소수의 정치권력자들의 교체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나뉠대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정치적 민주화'의 참된 의미이다. 현대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화로 인하여 더욱 복잡화되고,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오히려 평범한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현상을 동반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더욱이 가속화되는 지구화의 현실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을 악화시킴으로써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외

계층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고려 없이 참된 민주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소외계층을 사회중심으로 품기 위한 사회변동의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교회가 진실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예언적 사명을 통하여 불의한 사회를 비판하고 소외된 기틀을 끌어올리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의 상통을 이루어 나가려면, 정의로운 정치체제의 확립과 체제의 올바른 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혹은 사회봉사활동은 크게는 한국 역사 일반과 작게는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및 한국교회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교회 복지활동은 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때 외원기관 가운데 다수는 기독교 계통의 기관이었다. 그 후 1960년대 이후 일반적인 교회의 복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지만, 이 시기에 복지활동 영역에서 양산된 개별적 기독교인은 그 후에도 각종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20세기 중반에 들면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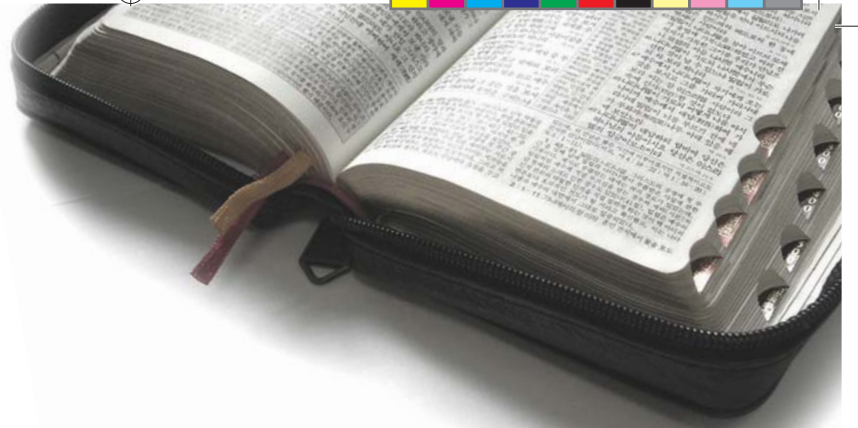
우리의 신앙과 일함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시킴으로써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이 곧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교회의 현실은 교회만을 성스러운 현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제사장직에 소홀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의 사회봉사적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사회 어린이, 노인, 청소년, 빈곤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다양 각색의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형교회 중에는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대대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하는가 하면, 일부 교회는 정부로부터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전문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사회봉사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실천기술에 관한 도움이 필요했고, 사회봉사의 효과성에 대한 선교적 그리고 사회복지적 평가의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다. 많은 교단들의 지도자들이 사회선교에 대한 정책을 논하기 시작했고, 교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훈련이 지교회에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의 3/4을 차지하는 전국대학의 기독교인 교수들과 전체 전문 사회복지 요원의 절반을 넘는 기독교인 전문 사회복지사들은 교회의 사회봉사가 보다 더 체계화, 조직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를 둔 전국 60여 개 대학의 절반이 기독교와 직접(신학교), 간접(기독교계 대학)으로 연계되어 교과과정에 교회사회봉사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고, 몇몇 대학교에서는 교회사회사업과까지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근대 문명을 매개함으로써 현대화를 가속케 한 주요한 매체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끼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성서의 번역과 보급 그리고 찬송가의 보급은 한국문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활발한 기독교 문화적 활동은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즉 현대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도덕적 문화적 위기에 처한 사회에 교회는 통합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며, 동시에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세계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변동적인 기능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교회는 '문화의 성숙화' 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선구자적인 고백과 각성을 하게 되며, 남한의 통일정책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하게 된다. 남북의 기독교는 1995년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함께 선포하고 8월 15일 직전주일을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함께 지키기로 하였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하였다. 희년 정신의 실천과 교회의 과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세웠다. 하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앙고백운동. 둘, 남북 민간의 화해운동. 셋, 인도적 삶의 회복운동. 넷, 남북의 나눔과 더불어 사는 운동. 다섯, 남북선교와 하나의 민족교회 형성운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5년 8월 15일). 오늘날 교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나 자선단체 등에도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기 때문에, 기독교의 나눔운동과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한국기독교회의 사회발전 참여를 위한 신학적 기초와 태도

한국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주의 깊이 살핀다면, 한국 교회의 신앙은 그 발생기부터 한국 사회발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대화하여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겠노라는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정신이 동기가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성격은 물산장려운동이나 금주, 절제운동을 통한 국채보상운동 등을 통하여서 계승되었다. 산업화가 성숙기에 접어든 근대화 과정에서의 한국 기독교 역시 사회통합적인 기능과 함께 사회변동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이러한 만인제사장직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많은 반성을 촉구한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당회라고 하는 지도집단으로서 교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주도하여 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결정적인 기준과 목표는 항상 이웃과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과 일함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시킴으로써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이 곧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교회만을 성스러운 현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제사장직에 소홀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로서의 본질과는 어긋나게 소수의 소리 큰 지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각성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활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활동의 정상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사회발전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한국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신앙적 실천을 한국 사회 안에서 수행해왔다. 사회통합적 기능에 주력하여 왔던 교회들과 시대가 있었고, 사회변동적 기능에 힘을 쏟았던 교회들과 시대도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특별히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다면 한국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발전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평등', '사회적 복지화', '통일 및 환경에의 관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신앙과 삶의 일치의 당위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고백, 뿌리깊은 죄성에 대한 통찰에 기초한 지속적인 자기 개혁 등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전제적 요소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적 기초의 확인, 그리고 구체적 실천은 한국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복음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개방적 수용성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개혁되어진 교회라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들 각자에게도 자신의 삶과 태도만을 절대시하지 아니 하고,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의 삶' 과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의 식케 하여, 더욱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책임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할 것이다.

글. 임성빈(장신대 기독교문화과 교수)

